서효인의 '소설처럼'



지극히 한국적인 리얼리티의 자랑스러움

-박상영. '대도시의 사랑법'

박상영 작가의 연작소설 '대도시의 사 랑법'은 모국어로 된 소설 읽기의 재미가 얼마나 충만할 수 있는지 증명하는 작품 이다. 자연스러운 구어체와 정갈한 문어 체가 혼용됐는데, 비문이 없는 단정한 구 조 안에 자리 잡은 2019년 한국의 비속 어나 유행어, 한국적 뉘앙스를 알아야 비 로소웃거나울거나판단내릴수있는유 머 같은 것. 이는 아무리 대단한 소설이 라도 해외에서 들여온 것들에는 내장되 어 있지 않다. 박상영은 이런 것들을 다 부릴 줄 안다. 대한민국에서 한국어를 쓰 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에 감사할 일이 그 다지 많지 않지만, 이런 소설을 읽는 순 간만큼은 한국 사람인 게 다행인 것이 다. 작가와 같은 모국어를 쓰게 된 운명 에 감사해 하면서.

첫 번째 수록작 '재희'는 2000년대에 대학 생활을 했을 청년들의 군상이 룸메 이트와 연애사와 취업과 결혼에 이르기 는 유장한 일업이 펼쳐지는 귀엽고 섬세 한 파노라마다. 그 길에 마주치게 되는 암초를 '재희'와 '나'는 함께 피하거나 넘는다. 나는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재 희와 병원에 동행하게 되는데, 재희는 자신의 몸뚱이를 앞에 놓고 펼쳐지는 의 사의 무람없는 잔소리와 참견을 견디지 못하고 책상에 놓여 있던 자궁 모형을 들고 자리를 뜬다. 그들에게 도움을 준 사람은 의사가 아니라 언니 또래인 간호 사다. 간호사는 수술도 해 주고 태도도 좋은 병원을 소개한다. 자신도 거기에 다닌다면서. 임신중절 수술을 둘러싼 여 성의 선택권과 연대에 대한 유머와 통찰 은 같은 세대를 압박하는 현실의 문제를 에돌지 않되, 심각하지도 않게 지속된 다. 이 힘이 남은 페이지를 단번에 읽게

'우럭 한 점 우주의 맛'에서 주인공 '나'는 암으로 투병 중인 엄마를 간병할 수 있는 유일한 혈육이다. 나는 엄마에 게 있어 이해와 인정의 범주에 들지 못한 다. 엄마로부터 억압과 폭력을 겪었으나 엄마는 그것이 폭력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엄마를 증오하고 거부하는 것 같지만 또한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것 처럼 보인다. 이해와 용서로 이루어진 쉬 운 결말을 포기한 채 소설은 거듭 묻는 다. 정상성은 무엇인지, 진짜 병든 자는 누구인지. 주인공은 간병으로만 시간을

보내는 것은 아니다. 한때 운동권이었고 지금은 편집자로 일하는 남자를 만나 사 랑을 나눈다. 둘의 사랑은 애틋한 동시 에 어색한 기운이 있는데, 이는 남자가 주인공을 교정과 계몽의 대상으로 여기 기 때문이다. 소설은 그렇다고 하여 '있 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한 다'는 텅 빈 메시지를 방출할 정도로 섣 부르진 않다. 그러하지 못할 수밖에 없 는 세상에 우리가 놓여 있음을 이 소설은 알고 있고, 그리하여 내비치는 이 쫄깃 하고 광활한 태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대도시의 사랑법'과 '늦은 우기의 바캉스'는 나가 가장 진지하고, 가장 오래 사랑한 연인 '규호'를 중심으로 규호가 나의 인생에 미래에서부터 시 작해 현재가 되었다가, 이제는 과거가 되어 버린 흐름 위에서 이야기의 노를

박상영의 이야기는 카약처럼 뒤집혔 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벽에 부딪 쳐 흔들렸다가도 다시 제 방향을 찾는 다. 매끈하고 정돈된 플롯에 의해 굴러 가는 소설이라기보다는 이리저리 맞고

구르는 인생 자체로 보이는데, 실제로 연 작소설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네 편의 소 설은 일견 자전적 소설의 면모가 있다. 그렇다고 '대도시의 사랑법'이 소설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다. 되레 나를 드러 내고 조각하여 다시 편집함으로써 근래 에 보기 드문 핍진성을 확보하는 데 완벽 히 성공했다. 이 소설은 그러니까 온갖 한국적 상황에 놓인 리얼리티인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인이어야 이 소설을 제대 로 만끽할 수 있으니, 한국어를 하는 게 얼마나 다행인가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한국 인임은 어떤 찜찜함을 남긴다. 소설의 주인공 '나'는 남자이다. 숨길 것도 없 이 그는 성소수자이고 그의 소수성이 소설을 끌고 가는 주요한 동력이기도 하다. '대도시의 사랑법'은 퀴어함을 전 면에 내세운 소설로 많은 이들의 사랑 을 받고 있지만 오늘도 그 대도시 곳곳 에서는 소수자를 향한 혐오의 언어와 폭력이 난무한다. 소설 속 인물들도, 작 가인 '나'도 한국 사람인 것을 다행으로 느낄까? 글쎄, 그건, 당신이 더 잘 알 듯

의료칼럼

조금만 걸어도 무겁고 피곤한 다리



김지용 청연한방병원장

외부 활동이 많은 여름철에는 하지 정 맥류를 치료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들이 증가한다. 조금만 움직여도 다 리에 피로함을 쉽게 느끼고 통증, 부종, 저림, 당김, 경련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서 수면 중 쥐가 나는 증상이 자주 발생 한다면 하지 정맥류를 의심해볼 수 있 다. 하지 정맥류가 있으면 신체적 불편함 은 물론 여성들의 경우 종아리에 나타난 푸른 핏줄로 인해 미관상 심각한 스트레 스를 받기도 한다.

하지 정맥류는 하지의 표재 정맥과 그 분지 혈관이 비정상적으로 확장되고 신 전되거나 비틀려서 피부 밖으로 돌출돼 보이는 것을 말한다. 하지 정맥류의 정확 한 원인은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선 천적 혹은 후천적으로 약화된 정맥 벽과 도 한다. 판막의 지속적인 기능 부전이 원인인 것 으로 알려져 있다.

오래 서 있는 자세 등의 이유로 정맥의 압력이 높아지면 심장으로 가는 혈류가 역 류하거나 심부 정맥이 폐쇄돼 순환 장애가 생기게 된다. 이 때문에 하지의 표재 정맥 이 점차 확장돼 정맥류가 발생하게 된다.

하지 정맥류를 발생시키는 위험 요인 으로는 유전적인 요인, 여성 호르몬의 영 향, 직업적인 영향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부모가 정맥류가 있을 경우에 그렇지 않 을 경우보다 자녀에게서 정맥류 발생 가 능성이 높다. 또한 남성보다 여성에서 정 맥류가 더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임 신, 생리 전, 폐경기의 호르몬의 변화가 원인으로 여성 호르몬이 정맥을 확장시 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호 르몬 대체 요법 또는 경구 피임약을 복용 하면 정맥류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하지 정맥류는 미용상의 문제와 함께 다양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하지 정 맥류가 있으면 다리가 무거운 느낌이 나 고 쉽게 피곤해지는 것 같으며 때로는 통 증, 욱신거림, 경련, 부종 등을 경험하기

초기에는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 가 많은데 이는 정맥 순환의 이상이 서서 히 나타나 환자가 이를 증상으로 자각하 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 정맥류는 대개 의 경우 시간이 경과할수록 정맥류의 직 경이 커지고 범위가 넓어지게 된다. 또 일 부에서는 정맥류성 피부염이 발생하고 피부 궤양 등이 유발될 수 있고 약한 자극 에도 많은 출혈을 일으키거나 혈전 발생 으로 혈전성 정맥염을 일으키기도 한다.

심하지 않은 하지 정맥류는 장기 입원 이나 복잡한 치료 과정을 요하지는 않는 다. 오랫동안 서 있거나 앉는 자세를 피 하고 누워서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 고 있으면 증상이 완화될 수 있다.

대표적인 보존적 치료는 정맥류용 압 박 스타킹을 착용하는 것이다. 압박 스타 킹은 종아리에 강한 압력을 주고 위로 올 라갈수록 단계적으로 압력이 낮아져서 혈액이 원활하게 심장 쪽으로 올라갈 수 있게 할 수 있다. 또한 다리 근육을 키울 수 있는 규칙적인 운동은 종아리 근육의 수축 및 이완을 도와 혈액 순환 개선에 도움이 된다.

만약 이러한 노력에도 증상이 심해지 거나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문 의료진에게 상담받는 것이 좋다.

하지 정맥류는 한의학적 치료를 통해 서 증상 호전 및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한약, 침, 약침 치료를 활용해서 하지 혈 액 순환을 도와주고 정맥 혈관 주변에 손 상과 함께 발생한 염증 반응들을 감소시 킬 수 있다.

최근 한의 연구에서는 불쾌감, 저린 증 상, 차가움, 통증, 가려운 증상을 호소하 는 하지 정맥류 환자에게 있어서 주관적 인 증상의 개선뿐만 아니라 하지 정맥류 의 중증도, 피부관류압, 어혈(瘀血) 지 수 검사에서도 유효성이 확인된 것으로

하지 정맥류는 자연 치유가 어려워 증 상이 나타난다면 경화제 주입 요법과 같 은 약물 요법을 통해 증상을 완화시킬 여 지가 존재하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어려 울수있다. 다리의 무게감이나 피로감이 있다면 가까운 한의 의료 기관에 내원해 개인에게 맞는 적절한 한의 치료를 통해 본질적으로 증상을 개선시켜 생활의 질 을 향상시키는 것이 좋다.

기 고

독서가 개인의 경쟁력이다



광주전남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이탈리아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 는 통계학상으로 상위 20%의 사람들이 80%의 부를 차지하는 '80대 20의 법칙' 을 발견했다. 그는 이 법칙이 경제 뿐 아 니라 기업, 개인 등 사회 각 분야에 적용 하는 보편적 가치라고 설명했다.

80대 20의 법칙은 세계화, 정보화, 자 본 이동의 자유화를 통해 점차 확대돼 승 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는 승자 독식 사회 로 귀결된다. 2018년 세계 부의 보고서 에 의하면 글로벌 상위 1%의 부자가 전 체 세계 부의 절반을 소유하고 있고 상위 10%의 사람들이 전체 부의 85%를 차지 하고 있다.

세계화는 필연적으로 경쟁과 도태를 수반한다. 살아남은 20%와 도태된 80% 의 계급 분화가 이루어진다. 전체의 20%만이 안정된 생활 속에서 자아실현 을 하는 반면 80%는 불안정한 고용이나 실업 상태에서 비참하게 생활한다.

미국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토마스 프리드먼은 '렉서스와 올리브 나무'라는 저서에서 렉서스의 최첨단 자동차 생산 라인을 세계화로, 올리브 나무를 가족, 지역 사회, 민족, 종교 등의 전통 가치로 비유하면서 비록 엄청난 저항이 있지만 세계화와 시장 경제를 물리칠 수 없는 유 일한 이데올로기로 간주했다.

프리드먼은 '세계는 평평하다'라는 저 서에서 세계화 시대는 선진국이건 후진 국이건 출신지와 관계없이 창의와 열정 을 가진 개인이 성공할 수 있는 개인 경쟁 력의 시대라고 선언했다. IT 기술 혁신에 따른 저렴해진 비용으로 개인이 세계와 경쟁하고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만들 어진 게 그 근거다. 과거의 세계화는 국가 와 글로벌 기업이 주도했으나 오늘날의 세계화는 컴퓨터와 인터넷 그리고 각종 소프트웨어로 무장한 개인이 주도한다.

이런 지식 기반 사회는 다름 사람보다 더 많은 지식과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수익을 얻는다. 지식 기반 사회가 도래하면서 지식의 원천 소 스로서 상상력과 창의력의 근원이 되는 독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나폴레옹, 링컨 등 시대의 아이콘이 된

위인의 배경에는 독서의 힘, 지식의 힘이 컸다. 나폴레옹은 전쟁터에서도 마차에 책을 잔뜩 실은 '진중 도서관'을 운영했 다. 링컨은 학교 앞에 가본 적도 없지만 당시 귀했던 책을 외울 때까지 큰소리로 낭독하는 특유의 독서방법을 통해 연설 과 토론 등 정치인의 자질을 쌓아 갔다. 미국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암기한다는 유명한 게티스버그 연설문은 그래서 가 능했다.

책에서 유래된 유명 브랜드도 많다. 롯 데는 독일의 문호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 의 슬픔'의 여주인공 샤를 롯데의 이름에 서 나왔다. 스타벅스는 미국작가 허먼 멜 빌의 '모비딕'에 나오는 스타벅이라는 열 정적인 성격에 다정다감하면서 커피를 매 우 좋아하는 항해사의 이름에서 따왔다.

우리나라는 인터넷, 스마트폰 보급이 대중화 되면서 독서 인구가 급감 추세에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국민 독 서 실태 조사에 의하면 1년에 한 권 이상 책을 읽는 사람의 비율인 독서율은 작년 60%에도 미치지 못한다. 정보 습득을 위한 매체로 스마트폰(69.4%), TV (14.8%)를 꼽았으며 책은 1.8%에 불과 한 실정이다. 국가 경쟁력 지수와 각국의 독서율 간에는 0.77이라는 높은 상관 관 계를 보여주고 있어 하락하는 독서율은 개인과 조직의 역량 뿐 아니라 국가경쟁 력 까지 하락시킨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과 해 리 포터의 저자 조앤 롤링은 유명한 독서 광이다. 이들은 책을 통한 상상력과 창의 력으로 거대한 부의 성을 쌓았다. 세계 3 위 부자인 워런 버핏도 자신의 성공 비결 로 독서를 꼽았다. 89세의 고령의 나이 에도 불구하고 하루 평균 500페이지씩 읽는다고 한다.

번영과 불안이 교차하는 탈산업화 시 대의 한국 경제 경쟁력은 거대한 정부도 거대한 자본도 아니다. 개인 경쟁력을 키 우고 개인의 역동성으로 승부할 수 밖에 없다. 지식 기반 사회에서 개인 경쟁력으 로 승부하려면 단순한 지식 축적을 떠나 창의력, 상상력, 종합적 사고력, 판단력 을 높여주는 독서가 중요하다. 핀린드가 인구수 대비 스타트업 기업수가 가장 많 은 벤처 선도 국가가 된 배경에도 세계 제1의 독서율이 꼽힌다.

社 說

'한옥 마을' 취지 좋지만 성과도 따져 봐야

농어촌 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 및 다. 지역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 온 한옥 마을 과 전원 마을 조성 사업이 겉돌고 있다. 15년간 20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 지만 인구 유입과 소득 창출 효과는 미미 하기만 하다.

전남도는 지난 2005년 12월 한옥 지원 조례를 제정한 이후 전통 한옥을 50㎡ 이 상 규모로 10동 이상 연계해 조성하는 마 을에 가구당 3000만 원의 보조금을 포함 해 최대 2억 원의 융자금을 지원해 왔다. 지금까지 기존 마을 정비나 신규 단지 조 성 등을 통해 도내에 조성된 한옥 마을은 모두 107곳이다.

이들 마을을 만드는 데 들어간 예산은 도비·시군비 등 1024억 원에 이른다. 개 별 한옥에 대한 보조금 291억 원, 융자 432억 원, 공공 기반시설 지원 301억 원 등이다. 더욱이 전남도는 최근 한옥 사업 의 신청 자격을 완화하고 융자금을 크게 확대해 지원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

전남도와 시군이 2004년부터 농림축 산식품부와 함께 추진해 온 전원 마을 조 성에도 지금까지 54개 지구 1809세대에 980억 원이 투입됐다. 하지만 사업지 선 정 뒤 도시민이 들어온 경우는 전체의 55 ~60%밖에 되지 않았다. 인구 유입과 지 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물론 한옥 마을의 경우 전통 한옥의 보 존과 문화적 가치를 높이는 데는 어느 정 도 기여했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긴 하다. 하지만 수익성에 치중하다 보니 지역적 특색이 없는 닮은꼴 한옥이 양산돼 기존 농촌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 것도 사 실이다. 게다가 개별 재산에 대한 지나친 지원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막대한 예 산 투입에 비해 인구 유입에 이렇다 할 효 과가 없고 소득 창출 등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하지 못한다면 이제는 원점에서 재 검토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제1회 '섬의 날' 섬의 가치 재조명 기회로

한국관광공사는 지난달 초 '2019 휴가 철 찾아가고 싶은 33섬'을 발표했다. 전 남 지역에서는 신안의 임자도·증도·우이 도, 완도의 청산도·금당도 등 14개 섬이 선정됐다.

이들 섬은 '걷기 좋은 섬', '풍경 좋은 섬', '이야기 섬', '신비의 섬', '체험의 섬' 등 5개 카테고리로 구분됐다. 세계에 서 가장 긴 공룡 발자국 보행열이 퇴적암 층에 선명하게 남아 있는 여수 사도는 '신비의 섬'으로,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슬로 시티'로 지정된 완도 청산도는 '걷 기 좋은 섬'으로, 진도 관매도와 완도 생 일도 및 고흥 애도는 '풍경 좋은 섬'으로 각각 뽑혔다.

섬은 제각기 다른 풍광을 품고 있다. 따라서 '휴양'을 위한 좋은 여행지이자 '힐링'을 위한 훌륭한 관광자원이기도 하 다. 지난 4월 천사대교가 개통됨에 따라 관광이 활성화된 신안 암태면의 네 개 섬 (자은도, 암태도, 팔금도, 안좌도)이 그 좋은 예다. 쇠락하던 일본 나오시마(直 島) 섬 역시 아트 프로젝트를 통해 '예술 의 섬'으로 탈바꿈했다.

하지만 섬은 마냥 아름다운 대상만은 아니다. 섬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열악한 시설로 불편을 감내해야 한다. 게다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향후 50년 내 60 여개 이상의 섬이 사람들이 살지 않는 무인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실정

오늘은 '제1회 섬의 날'이다. 지난해 8 월, 행정안전부는 도서개발촉진법을 개 정해 매년 8월 8일을 국가기념일인 '섬의 날'로 제정했다.

첫 행사로 8~10일 사흘간 목포 삼학 도에서 '대한민국 썸 페스티벌'이 개최 된다. 섬 민속경연 대회와 학술대회, 셰 프 푸드쇼 등 섬 주민과 관광객들이 함 께하는 축제 형식으로 치러진다. 이번 '섬의 날' 행사가 보석 같은 섬의 가치 를 재조명하는 가운데 섬의 미래를 새 롭게 열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無等鼓 👀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영토 분쟁이 발생 한 지역은 대략 60~70곳 정도로 추정되 고 있다. 이 가운데 중국·인도의 국경 분쟁 과 인도·파키스탄의 카슈미르를 제외하면 대부분 섬과 관련돼 있다. 영국·아르헨티 나의 포클랜드, 중국·베트남·필리핀의 난 사 군도, 중국・일본의 조어도(센키쿠), 러 시아·일본의 쿠릴 열도 등이 대표적이다.

섬이 뒤늦게 분쟁의 대상이 되는 이유 는 그동안 본토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관 심이 덜했기 때문이다. 관리·운영하는 데 비용이더들고영토로서

의 가치에 대한 인식도 낮았다. 조선시대에는 섬을아예 비워두는 공도

(空島)정책을 추진하기도 했다. 19세기 말 열강들이 한반도를 먹잇감으로 해 쟁 투를 벌일 당시 가장 먼저 불법 점거를 당 한 것도 섬이었다.

거문도는 러시아의 조선 진출에 대해 견제에 나선 영국에 의해 1885년 3월 1 일부터 1887년 2월 5일까지 불법으로 점 령당했다. 영국은 이미 1845년 거문도에 대해 조사를 벌였고, 해양 거점인 거문도 를 차지해 중국・일본 무역을 보호하고 러 시아를 대비해야 한다는 내부 검토를 마 쳤다. 영국이 거문도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홍콩과 상해를 잇는 각각 1800km, 600km에 이르는 통신선을 설치하는 것 이었다. 거문도의 해양 거점 기능을 한층 향상시킨 것이다.

일본이 패망하자 1951년 전후 처리를 논의했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도 섬이 이슈가 됐다. 일본은 거문도를 할양 해 줄 것을, 우리나라는 독도·파랑도는 물론 대마도까지 일본의 권리·자격·영유 권 포기를 각각 미국에 바랐다고 한다.

전남은 섬의 보고(寶 무한의 가치, 섬

庫)다. 전국의 유인도 470개 중 276개, 무인도 2869개 중 1889개가 이

곳에 있다. 하지만 그동안 섬은 소외・고립・ 불편의 대상이었다. 따라서 섬 주민의 편 의 증진과 교통 불편 해소 등의 소극적인 접근법이 주류를 이뤘다. 8월 8일부터 10 일까지 목포 삼학도 일원에서 제1회 섬의 날 주간 행사가 열린다. 8을 옆으로 눕히면 무한대(∞)가 되는데, 섬이 무한의 가치를 지녔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이처럼 날 짜도 특별히 정했다고 한다. 섬을 세계로 향하는 우리의 디딤돌로 삼았으면 하는 바 람이다. /윤현석 정치부 부장 chadol@

光则日報

편집국안내

전 남 본 부 220-0642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부 220-0661 화 치 부 220-0632 육 부 220-0633 제 부 220-0663 예 향 부 220-0692 사 회 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4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 X 222-019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울 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0 0633/ 팩스 062 222 4918 / e메일 opinion@kwangju.co.kr